

2008년도 배합사료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1. 사료수급 동향 및 전망

2007년 11월누계 총 배합사료 생산량은 14,722천톤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여 12월까지의 연간 총 1,6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15,850천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사상 최고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축종별 생산동향을 보면 양돈사료가 4,409천톤으로 전년대비 3.3% 증가를 비롯해 양돈사료 및 비육우사료가 각각 4.5%, 7.8% 증가하는 반면 낙농사료는 6.2% 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2007년도 양계사료생산량은 2005년 대비 2006년도의 4.9% 증가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2007년중 4,409천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홍순찬 부장
(사)한국사료협회

추정된다. 이는 2003년 우리나라의 AI 발생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2007년 양계사료 부문별 전년대비 생산동향을 보면 산란계사료가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육추와 육계사료는 각각 2.3%,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계산업 중에서도 산란계 부문보다는 육계 부문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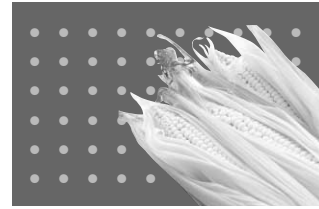
사료생산량은 결국 해당 축종의 경기와 사육마릿수 변동에 근거하므로 2008년도 양계사료 수급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축산관측(농촌경제연구원)을 인용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4/4분기 관측에 의하면 산란계의 경우 2007년 9~11월 동안 계란생산에 신규로 참여한 3~6개월령 미만 산란실용계 병아리수수는

〈표 1〉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동향

(단위 : 천톤)

구분		2005년(A)	2006년(B)	2007년(C)	대비(%)	
					C/A	C/B
총 배합사료생산량		15,079	15,475	16,060	106.5	103.8
양계사료 생 산 량	육추사료	315	302	309	98.1	102.3
	산란사료	1,920	1,951	1,931	100.6	99.0
	육계사료	1,969	2,014	2,169	110.1	107.7
	소계	4,204	4,267	4,409	104.9	103.3
양계사료 점유비율(%)		27.9	27.6	27.4	-	-

※ 2007년 생산량은 11월까지의 생산량을 균분하여 추정된 것임.



622만수로 전년동기 보다 2.4% 감소했다.

또한 2007년 12월~2007년 2월중 계란생산에 가담하게 될 3개월령 미만의 신계군수 역시 609만수로 전년 동기보다 7.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생산농가의 도태의향도 높아 2008년 3월의 산란용 마리수는 올해 동기에 비해 1.5% 감소한 4,339만수로 전망되는 등 2008년 1/4분기중 산란계부문의 경기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 반대의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사료생산량 역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8년도 육계부문의 경우는 산란계 부문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7년도 11월중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가 전년보다 0.9% 증가하여 12월의 병아리 사육수수가 전년보다 2.3%, 11월보다는 3.4% 증가한 5,665만수로 전망하고 있다. 12월중 육용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또한 2006년도 보다 높아 2008년 1월 사육수수도 2007년 1월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후 2008년 4월까지 육용 실용계 생산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 사육수수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병아리 생산잠재력 보다는 낮기 때문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경우도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국

제 사료원료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8년중 사료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경우 양축농가의 사육수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년 육계사료 수급상황은 계육가격 등과 같은 예전의 전제조건에 더하여 사료가격의 등락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사료산업 주변환경의 급속한 변화

1) 농산물을 이용한 에너지산업의 급속한 확산

2006년 이후 시작된 곡물가격의 세계적인 급등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은 에너지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옥수수 등 곡물가격의 상승은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료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식품산업 등 농산물 관련산업에 공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번의 가격상승은 몇 년의 주기로 등락을 거듭하던 예전의 패턴과는 대별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향후 농산물 국제거래의 가격대(帶)를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이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우선 과거에는 식용 및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던 옥수수 등의 농산물이 운송수단에 이용되는 에너지 생산, 즉 에탄올 제조용으로의 신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있다. 세계 옥수수 수출

2008년도 배합사료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시장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 가격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향후 옥수수 생산량의 30% 이상이 에탄올 제조용으로 사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표 2).

〈표 2〉 미국의 에탄올 제조용 옥수수 수요량

연도	옥수수 수요량	생산/에탄올용 수요	비고
2005	4,060만톤	15.0%	• 2010년의 경우 미국내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량은 203.2~228.6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2006	5,461	20.0	
2007(E)	8,128	26.0	
2008(E)	10,160	28.0	

※ 자료 : Jay O'Neil, International Grains Program(Kansas State University)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산업의 활황은 기존에 대두, 소맥 등이 재배면적인 옥수수로 전환됨에 따라 여타 농산물의 연쇄적인 가격상승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옥수수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옥수수 생산국의 경우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아프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새로운 옥수수 경작이 붐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단위당 생산량확대를 위해 비료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산칼슘 등 농산물 이외의 광물성 사료원료 가격도 상승시킴으로써 에탄올산업의 영향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료원료의 가격상승을 주도하

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세계 농산물 가격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정책 기조로 볼 때 에탄올산업의 활황이 언제쯤 둔화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환경개선을 위한 에너지재생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엔진시동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에탄올수요량을 증가시키고 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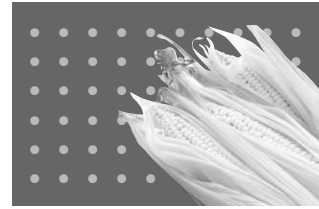
더 나아가 옥수수 등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해 이를 이용한 에탄올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에 대비해 식물의 섬유소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에탄올 산업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환경 및 에너지문제를 떠나서라도 미국의 경제적 측면(농업정책)에서 보더라도 미국 농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표 3〉 미국내 에탄올 수요 및 가격동향

구분	2005	2006	2007	비고
생산량 (mil gal)	3,904	4,855	6,836	• 2008년도 미국내 에탄올 소비량은 7,060 mil gal으로 예상됨.
소비량 (mil gal)	4,050	5,442	7,032	
가격 (\$/gal)	1.80	2.58	2.17	
휘발유가격 (\$/gal)	1.66	1.94	2.07	

※ 자료 : Dr. Simla Tokgo, Iowa State University



(특히, 옥수수 등 곡물산업)의 세계지배력을 계속 확대키 위해서라도 고가격(高價格)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적으로 기아문제 및 화석원료와 비교할 때 농산물을 이용한 에탄올제조에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룹의 일부 의견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의 사료/곡물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에탄올산업 문제는 상당기간 사료원료 수급에 있어 핫-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2) 주요 수출국들의 농산물 수출금지 정책 시행

중국의 옥수수 수출물량의 제한조치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옥수수 생산지대인 길림성을 비롯한 동북삼성에서 중국의 남쪽지역까지 옥수수를 운반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과다발생으로 남쪽지역에서는 오히려 수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가까운 한국 등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료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중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료원료 수입시장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중국의 옥수수 수출로 인해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견제되어 왔던 사실에 비춰볼 때 중국의 옥수수 수출금지 조치는 결국 미국산이 주도하는 옥수수의 국제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류가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맥(밀)의 경우 주요생산국인 호주, 동유럽지역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해 기존 수출 국가들이 예전에는 없던 수출세(20%~30%)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일부에서는 이미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같이 미국 이외의 곡물수출국의 수급불안은 세계 상품거래시장의 자본이 곡물에 대한 투기자본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여 곡물의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에탄올제조용도의 새로운 수요처발생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감소가 옥수수 등 곡물류(穀物類) 가격의 상승요인이라면, 야자박 등 식물성박류의 가격상승은 수출국의 수요증가에 기인한 수출물량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원료의 주요수출국인 동남아 국가들의 가공기술 발달로 식물성 기름과 전분을 추출하고 남은 단순부산물 생산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으로 전환 생산되고 있으며, 그나마 생산되는 원료들도 자국의 축산업발전으로 자국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 배합사료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3) 사료원료 운송선박의 수급불균형

수입사료원료의 가격은 선물가격(先物價格)+수출국 내륙운송비용+해상선박운임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사료원료 가격형성 상황을 보면 사료원료의 내재적가격(先物價格)은 강보합, 해상운임은 급상승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원료 가격상승의 주도적 원인이 원료가격(물건대금, FOB) 상승보다는 물류비(해상운임, Ocean Freight) 상승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료원료의 경우 해상운임이 포함된 국내항 도착 기준가격(C&F)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있어 세계적인 해상 선박운임료 상승은 사료의 생산비용 증가요인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제 해상운임상승의 주요원인은 중국의 팔목할 만한 성장으로 세계의 원자재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선박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올림픽 개최준비에 따른 건설자재 등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운임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보다 우려할 사안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란 점과 호주, 인도 등 세계 주요항구의 체선현상이 당초보다 장기화되면서 해상운임의 강세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상운임의 강세요인에도 불구하고 2005/2007년중 신건조(新建造) 선박의 증가율이 연평균 25% 수준에 있고, 5~7년주기로 반복되는 세계경제의 호황/침체의 사이클이 도래되어 신흥 개발성장국의 경제성장세가 다소간 진정될 것이란 점 때문에 향후 해양선임 가격의 경우 지난 1년간과 같은 급등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상운임 역시 옥수수 등 곡물가격의 전망과 같이 예전의 가격대로 회귀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일정기간 이후 선임가격이 안정되더라도 Gulf-일본간의 해상운임은 85\$/톤~100\$/톤 사이의 박스권에서 형성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3. 국제원료 가격동향

사료원료 가격은 에탄올산업 활황과 해상운임 상승의 여파로 사료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표 4〉 해상운임(Ocean Freight) 동향

구분		2006. 6(A)	2006. 12(B)	2007. 6(C)	2007. 12(D)	증감률(%)	
						D/B	D/C
해상운임 (\$/톤)	PNW	28.9	39.8	44.5	91.0	128.6	104.5
	GULF	32.6	52.6	70.1	115.4	119.4	64.6



〈표 5〉 주요원료 가격동향

(단위: US\$/톤)

구분	2006평균(A)	2007. 3(B)	2007. 6(C)	2007. 12(D)	상승률(%)		
					D/A	D/B	D/C
옥수수	143.6	289.9	210.3	296.9	106.8	56.3	41.2
소 맥	140.2	200.6	207.8	420.0	199.6	109.4	102.1
대두박	229.5	245.4	248.4	455.6	98.6	85.7	83.4
밀기울	125.2	148.9	177.2	209.8	67.6	40.9	18.4
채종박	143.3	147.6	156.0	292.2	103.8	97.8	87.2

높은 원료가격 시대를 맞고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과 같은 가격상승세를 누그러뜨릴 만한 호재가 없어 원료가격의 강세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원료가격이 2006년도 평균 수입가격에 비해 80%~110% 상승했으며, 구매시점이 뒤로 갈수록 구매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실정에 있다(표 5).

2006년 이후 에탄올산업의 영향으로 촉발된 이번의 사료원료 가격상승은 지난 60년 사료산업 통계가 존재하는 이래 옥수수 수입가격이 톤당 200\$이 넘는 적이 없었음에 비취볼 때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옥수수의 경우 2006년 평균 수입가격에 비해 최근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소맥의 경우는 3배 이상 폭등하여 이미 사료원료로서의 경제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수수와 함께 배합사료의 가격 및 품질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대두박은 2.5배 가까이 올라 있다. 주요원료인 옥수수 및 대두박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료원료 가격이 동반상승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4. 사료가격 동향 및 전망

배합사료 산업은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원료의 실질 수입의존도가 95%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의 산업별 경영분석에 의하면 배합사료 생산비용 중 원재료비 비중을 85% 내외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에 있어서 기업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원료의 수입가격 상승폭 그대로가 사료의 생산비용 증가로 직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6년 1/4중 비육용사료에 대해 평균 3%

2008년도 배합사료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표 6〉 양계용 배합사료 가격변동 내용


(단위 : 원/25kg, 공장도가격 기준)

구분	2006. 평균(A)	2007. 3(B)	2007. 10(C)	변동률(%)	
				C / A	C / B
병아리용	6,207	6,787	7,445	19.9	9.6
산란용	6,406	6,874	7,727	20.6	12.4
육계용	7,574	8,174	8,760	15.6	7.2
총계용	5,621	6,086	6,351	13.0	4.4
평균	6,816	7,335	8,018	17.6	9.3

내외의 인하조정이 있었는데 이는 생산비 변동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이후 광우병의 영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방침에 따른 일회성 조치였다. 그러나 2006년 1/4분기중의 공식적인 가격인하는 비육우사료에 한정되었으나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양계사료를 비롯한 여타 축종의 사료가격도 인하됐다.

2007년 들어서는 시기별·축종별 차이는 있으나 연속 4차례의 가격인상으로 축산경영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표 6). 우리나라와 같은 원료수입국인 일본 역시 지난 2006년 4/4분기 이후 줄곧 4차례에 걸쳐 누계로 총 42.0%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2006년 평균가격 대비 축종에 따라 25%~30%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문제는 향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이미 예견되는 바이기는 하지만 2008년중에도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어느 정도가 인상되는가 관건으로 보여진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배합사료 가격을 형성하는 사료원료 가격은 사료업체가 이미 3~4개월 이전에 구매한 원료가격이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사료원료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합사료 생산시기가 늦어지면 질수록 사료생산비용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